

書評 : 許世旭著 『中國近代文學史』

崔 溶 澈*

한국의 중국문학계는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광복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문학 연구는 70년대에 이르러 보다 폭넓은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맞물려 80년대를 지나면서 차츰 연구의 심도를 더하여 오늘날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어 21세기를 앞두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정책이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중국학계의 방대한 연구성과나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학문적 업적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 실정 이어서 스스로 무거운 책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문학사의 저술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장구한 역사와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중국문학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초심자는 물론 학문의 길을 더듬어 나아가야 하는 학자들에게 험난한 항해길을 비취주는 등대 처럼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저술보다도 중요시되는 연구분야라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許世旭교수의 『中國近代文學史』가 간행된 것은 학계의 목마름을 상당히 해소시켜주는 시의적절한 청량제의 출현으로서 주목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저자가 앞서 저술한 『中國古代文學史』의 속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로써 그의 문학사 연구에 하나의 완결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고려대 중문과에 전임되던 지난 1986년 본서의 저술에 착수하여 꼬박 10년의 세월을 들여 宋代 이후 淸末까지의 근 1천년간의 문학발전 양상을 조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마침내 8백여쪽의 방대한 저

* 高麗大學校 中文科 副教授.

술을 이룩했다. 전편에 해당되는 『고대문학사』에서는 周初에서 唐·五代까지의 약 2천년간의 문학사를 기술했는데, 본서의 간행으로 3천년간의 중국문학사 전체를 완성한 셈이다. 이처럼 방대한 문학사의 저술이 가능했던 데는 저자의 남다른 근면함과 젊은이 못지 않은 치열한 연구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十年辛苦不尋常”이라고 하겠다.

서명을 굳이 『근대문학사』라고 잡은 것은 문학사 시대구분의 양분법에 따라 『고대문학사』의 속편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민중의 문학으로서 통속문학이 부각되기 시작한 송대이후의 문학에서 근대성을 찾고자 하는 저자의 확고한 문학사관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근대문학사의 내용을 宋代, 遼金元代, 明代, 清代 등 역사적 朝代를 중심으로 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존의 문학사에서 송원을 묶어 서술하거나 송대부분에 요금시대를 덧붙이는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여 ‘少數民族통치시대’라는 특징으로 遼金元代를 별도 독립시켰다. 저자는 이 시대의 문학이 비록 漢族의 문학에서 비껴 서 있기는 하지만 폭넓은 중국문학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통일제국이었던 元代의 경우 唐宋의 전통을 이어받고 明清의 문학을 열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장별로 개설을 두어 시대적 문화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대문학사』에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제목에 각각 ‘民族主義와 理性主義’(宋代), ‘古典主義와 浪漫主義’(明代) 및 ‘古典의 종말과 근대화 시기’(清代)와 같은 표제어를 넣어 시대별 특성을 드러내는 세심함은 앞의 저술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물론 정치사적 역사발전의 양상과 문학사조의 흐름이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왕조의 흥망사를 위주로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그대로 대치시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문예사조의 동질성이나 변모양상 만을 가지고 구분할 때 오히려 ‘명대초기’, ‘명말청초’, ‘청대후기’와 같은 시기구분이 문학발전의 시대적 흐름을 좀더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방대한 문학사의 전반적인 개술이라는 면에서 작업상 쉽사리 채택할 수 있는 구분법은 아닐 수도 있다. 본서의 내용에서는 앞서 근대성의 문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속문학의 중심이 되는 소설과 회곡에 대한 서술이 많은 편폭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저자의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시대별 문학발전 현상을 서술하면서 대체로 동일한 순서에 따라 각 장르의 문학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그 시대의 중심문학을 부각시켜야 하는 문학사 서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혼선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송대문학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詞文學이 詩에 비해 뒤에 소개되고 또한 분량도 약간 적은 것은 저자가 나름대로 中國詩史에서 宋詩가 차지하는 위치를 재평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遼金元대의 문학에서도 여전히 詩詞와 散文, 批評의 순서에 이어 曲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은 초학자들에게 시대를 대표하는 중심문학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못하는 아쉬움도 있게 될 것이다. 明清代의 경우는 비록 소설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전통적인 문학사에서는 여전히 소설과 회곡에 대한 서술을 시문의 뒤에 두었기 때문에 본서의 경우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청대의 경우 문학비평을 앞에 두어 曲批評(회곡비평)과 小說批評을 공부한 연후에 비로소 회곡과 소설의 작품내용을 접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움이 보이기도 한다. 또 명대소설에서는 단편소설을 소개하면서 문언인 “剪燈三種”과 백화인 “三言”을 같은 선상에서 서술하여 “擬話本集”이라고 한 것은 소설사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고, 청대의 경우에도 소설 전체를 문언단편과 통속장편으로 단순하게 二分하여 명대와는 불균형을 이루지 않나 생각된다. 상당히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나온 『明清文學史』에서는 아예 소설과 회곡, 시문, 문학비평, 민간문학의 순서에 의해 문학사 서술을 하여 전혀 새로운 문학사관을 드러낸 경우도 있음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전통적 분류체계를 대체로 따르고 있으면서 문학사 흐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술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각 시기의 문학현상과 다양한 문학장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문헌자료를 꼼꼼하게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저술보다도 충실한 연구서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다. 초학자는 물론 학계전반에 귀중한 연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앞으로의 국내 중국문학 연구에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전면인 『고대문학사』에서는 각 장의 말미에 중요연구문헌을 열거한 바 있는

데, 본서에는 훨씬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이유 때문인지 따로 수록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 서구의 회귀자료에서부터 극히 최근에 國內와 臺灣에서 나온 박사논문은 물론 심지어 석사논문에 이르기까지 필요하다면 일일이 주석을 통해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은 저자의 자료수집이 꾸준하면서도 꼼꼼하게 이뤄졌으며, 不恥下問의 철저한 학문적 자세가 더욱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굴되어 세계 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명대 단편소설집 『型世言』에 대한 연구성과도 문학사 연구사상 최초로 반영되고 있어 본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요소요소에 인용하고 있는 원작품의 감상을 위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우리말로 가다듬은 아름다운 번역문을 일일이 달아 놓고 있는 점은 이 책의 귀중한 보석이 아닌가 한다. 이는 비단 저자 스스로가 뛰어난 시인이자 수필가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후학들에게 우리 말 번역의 전범을 보여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로서 오랜 가슴앓이를 통해 그려낸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보고 싶다. 저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문학사 연구의 결실이 국내 중국문학계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후학들은 마땅히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